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

VKFTA: 10 Years of Cooperation and Future Prospects

김바우

삼성전자 DX부문

2025.11.24

Disclaimer

본 자료는 개인 연구자의 견해로서, 저자가 산업연구원 재직 중 수행한 연구들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현 소속기관인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고,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둡니다.

김바우, 정선인, 김정현 (2020), 베트남 진출 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비교,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김바우, 김정현, 정선인 (2022),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최정환, 김바우, 김정현 (2023), 베트남 진출 한국계 및 일본계 기업의 국제무역구조, 국제경제연구

차 례

- 1 연구 배경
- 2 선행 연구
- 3 분석 자료
- 4 분석 결과

연구 배경

- 최근 **10**년간 아태 지역의 국제분업구조가 급격히 변화
 -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과 지정학적 갈등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
 - 2018년 이후 미·중 분쟁 이후 미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감소, 베트남 비중은 상승세가 뚜렷
 - 베트남은 동아시아 기업들, 특히 ICT 기업들의 새로운 제조 거점 및 수출 플랫폼으로 부상
 - 최근 한중 분업구조가 일반무역 중심으로 개편된 점 또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연구 배경

- 한-베 **FTA**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는 급격한 성장을 기록
 - 양국간 무역은 2014년 303억 달러에서 2024년 867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
 - 동기간 베트남의 대세계 무역은 연평균 4.2%, 한국은 1.8% 성장하는데 그쳐 대조를 이룸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또한 2014년 누적 11.6억 달러에 그쳤으나 FTA 체결 이후 10년간 27.7억 달러 신규 투자 실행
 - 특히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수입 파트너로 부상, 최근에는 수입액 기준 한국을 추월

연구 배경

- 한국 해외진출기업은 한-베 무역구조 변화의 핵심이나 국가별 통계만으로는 파악에 한계
 - 해외진출기업의 무역은 글로벌 분업구조 측면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결정하므로 정책적으로도 중요
 - 기존의 분석 방법론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무역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
 - 세계무역통계 작성에 관한 매뉴얼인 IMTS에서는 물품의 원산국과 선적국을 분리하여 통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속력 없어 통관기준 무역통계에는 원산국 정보만 기재

연구 배경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국제분업 행태를 선하증권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선하증권을 활용하여 베트남 내 한국계 기업들의 국제무역구조 특징을 실증적으로 규명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하 B/L)은 화주와 선박회사가 해양운송계약을 맺을 때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의 기본이 되는 서류
 - 선하증권상 한국기업을 식별하고 기업들의 무역구조를 일본기업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베트남의 국제분업 행태를 규명

차 례

- 1 연구 배경
- 2 선행 연구
- 3 분석 자료
- 4 분석 결과

선행 연구

● FDI와 국제무역

- 수평적 FDI: 거래비용 절약 및 현지시장 진출 목적
- 관련 연구: Markusen (1984); Brainard (1997);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 수직적 FDI: 요소 가격 차이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 목적
- 관련 연구: Helpman (1984); Hanson, Mataloni, and Slaughter (2001)
- 현실에서는 Hybrid FDI도 발생 (Markusen, 1997)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Hybrid FDI를 선호 (한국 사례: Hyun and Hur, 2013)

선행 연구

- 선택증권(B/L) 활용 국제무역 연구
 - 선택증권을 사용한 국제무역 연구의 장점 (Flaaen et al., 2023)
 - 수출업자-수입업자-교역국가-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 고빈도(high-frequency) 데이터
 - 통계 당국 발표 데이터 대비 빠른 공개
 - 기업 식별부호(ID)를 사용하여 여타 데이터와 연계 분석 가능
 -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사례 등장
 - Bonfiglioli et al. (2021):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집중도 변화 분석
 - Ganapati et al. (2024): B/L 데이터와 선박위치 데이터를 연계, 환적항의 경제효과 분석
 - 한국에서 베트남 B/L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김바우 외 (2020; 2022), 최정환 외 (2023)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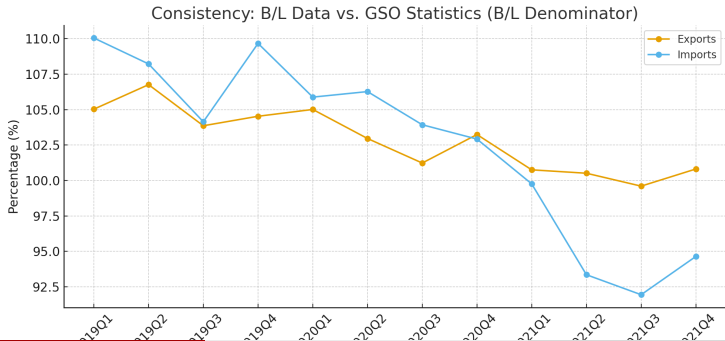
차 례

- 1 연구 배경
- 2 선행 연구
- 3 분석 자료**
- 4 분석 결과

분석 자료

● 베트남 세관 B/L 자료 개관

- 산업연구원이 IHS사를 통해 구입한 베트남 세관 B/L 자료를 분석
- 2019–2021년간 일별 데이터, 100GB 이상의 빅데이터
- 베트남 통계청(GSO)이 발표한 수출입 자료와 B/L 데이터는 동기간 일치하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일치하여 대표성 확보



분석 자료

- 한국계 기업 식별
 - 한국계 기업 식별을 위해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한인상공인연합회로부터 기업명단 추출
 - Stop words를 제거하고 Fuzzy matching을 시도 (최정환 외, 2024)
 - Simple matching: 약 1천여 개, Fuzzy matching: 3,371개 기업 식별
 - 기업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된 기업들을 한국계 기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전반적인 교역패턴과 한국계 기업의 교역패턴을 분석

차 례

- 1 연구 배경
- 2 선행 연구
- 3 분석 자료
-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

-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기업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 이상**, 수입의 **1/4 이상**을 설명
 - 베트남 B/L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인 김바우 외 (2020)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대세계 수출에서 한국계 기업의 기여도는 23.7%
 - 이후 연구에서는 기업 식별방법론 개선을 통해 동 비중을 30%이상으로 추계, 이는 일본계 기업 (수출 7.3%, 수입 8% 대비 높은 수준)

연구별 기여도 비교

연구	기여도(%)	2019	2020	2021
김바우 외 (2020)	수출	23.7		
	수입	18.5		
김바우 외 (2022)	수출	30.9	31.1	31.2
	수입	18.7	20.8	21.3
최정환 외 (2024)	수출	34.8	33.9	35.2
	수입	26.3	28.1	30.0

분석 결과

- 한국계 기업 수출입의 품목 구조는 통신기기, **ICT** 제품에 집중
- 수입에서도 IC 회로, 인쇄회로, 휴대전화 중간재 등 ICT 제품의 부품들이 상위에 위치, 일본계 기업의 수출입은 상위 품목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 대조를 이룸

① 한국계 기업

수출 품목(HS)	구성비	수입 품목(HS)	금액(비중)
통신기기(8517)	53.3	집적회로(8542)	25.9
영상음향 부품(8529)	4.0	통신기기(8517)	19.8
컴퓨터(8471)	3.6	영상음향 부품(8529)	4.8
모니터·프로젝터(8528)	3.1	인쇄회로(8534)	2.7
전산기기 부품(8473)	2.9	축전지·배터리(8507)	2.3

② 일본계 기업

수출 품목(HS)	구성비	수입 품목(HS)	금액(비중)
프린터(8443)	13.5	집적회로(8542)	8.9
케이블(8544)	13.2	자동차(8703)	4.3
카메라(9006)	4.1	자동차 부품	4.0
전기모터(8501)	2.9	전기기기	3.3
의료기기(9018)	2.8	열간압연 강판	2.6

분석 결과

- 한국계 기업의 상위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한국이며, 수입은 과반이 한국산
 - 한국계 기업은 미국 등 제3국 수출 비중이 85%로 일본계 기업(64%) 대비 높음
 - 한국계 기업 수입의 52%, 일본계 기업 수입의 40%는 자국으로부터의 부품/장비 수입
 - 무역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계 기업이 좀 더 높은데, 이는 양국의 ASEAN 진출 전략 차이에 기인

한국계 기업				일본계 기업			
수출국	비중	수입국	비중	수출국	비중	수입국	비중
미국	20.8	한국	51.9	일본	35.7	일본	40.0
중국	16.4	중국	25.0	미국	15.7	태국	13.2
한국	14.3	싱가포르	5.0	중국	10.4	중국	11.0
UAE	3.3	홍콩	3.8	홍콩	4.2	홍콩	8.7
홍콩	3.2	대만	2.7	태국	4.2	한국	4.6

분석 결과

- 한국계·일본계 기업 모두 임가공 무역을 주로 수행
 - 베트남 세관은 수출은 16개, 수입은 24개의 무역 방식으로 구분
 - 한국계, 일본계 기업 공히 수출의 90% 이상이 가공무역(E, Processing Trade)에 해당
 - 수입은 한국계 기업(85.2%)의 가공무역 비중이 일본계 기업(55.4%) 대비 높아, 한국계 기업은 임가공 중심의 국제분업구조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론

- 베트남 **B/L**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계 기업을 식별하고 무역패턴을 분석
 - 한국계 기업은 일본계 기업 대비 베트남 무역에 있어 높은 기여도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한 점이 특징적
 - 한국계 기업 무역은 특정 ICT 제품 비중이 매우 높고, 미국 등 ASEAN 역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한국계 기업은 일본계 기업 대비 상품·국가군 집중도가 높아, 다원화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대비할 필요

결론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해외기업들의 탈중국 추세와 그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현재 한-베 간 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에 해당하나,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줄어들어는 경우 수직적 분업의 이득이 감소
 -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주요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을 가속화하는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확대는 수직적 분업구조의 안정성을 위협
 - 지속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및 교역구조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상시 수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
 - 정부는 통상협정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힘쓸 필요
 - 김바우 외 (2022)에서 중국의 수출규제 확대 등 무역정책 변화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 2024년 수출통제를 통해 현실화된 사례가 존재

감사합니다